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87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5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목차

포커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정기 / 송경태(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장애인계 뉴스
1. 한시련, 2012년 대의원 정기총회 및 전국심화재활교육연수회 개최
2. GKL(주),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요금 지원
3. 장애학생들의 나흘간의 열전, 제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고양시에서 열려
4. 소셜 네트워크, 장애인에겐 '사회적 단절'의 또 다른 이름
-대표 SNS 웹 접근성 평균 53.6점
5. 힘스인터내셔널, 보조공학 전문가 대상으로 세미나 열어
6. 영화 '코리아', 화면해설·한글자막버전 상영회 개최
7. 인공 전자망막 이식 성공, 시각장애인 2명 시력 되찾아
기획: 대통령 직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19대 국회에서 가능할까?
독자마당: 선거는 나를 고민에 빠트린다 / 한상희(서울 서초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4월 16일~4월 30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55)
~~~~~~~~~~~~~

포커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정기

송경태(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또 눈을 떴다. 어디가 어딘지 아직 모르겠다. 얼굴의 볼 살이 찢겨나가는 혹한의 안나푸르나에 있어야 하는데, 춥지도 않다. 숨도 안차다. 머리의 통증도 매스꺼움도 없다. 살을 에는 돌풍도 불지 않는다. 목숨을 내놓고 가야하는 크레바스(빙하의 표면에 생긴 깊은 균열-편집자 설명)도 보이지 않는다. 손에도 발에도 동상이 없다. 옆에 있어야 할 도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곳이 어디일까?

한참을 생각 후에 "후우!"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그렇다. 이제 나는 안전한 땅, 축복의 땅, 흙이 있는 곳, 생명의 풀이 있는 곳,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길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다. 마냥 행복하다. 아아!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던가?

며칠 전까지 나는 혹독한 추위와 고산증(두통, 구토, 목건조증)과 사투를 벌이며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있었다.

한국산악회 전북지부 이중기 원정단장(전주 중앙여고 교사), 김유성 구조대장(원광대 교수)과 함께 2월 16일부터 20일까지(4박 5일) 안나푸르나(ABC: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편집자 설명)에 도전하고 있었다. 누군가 시켜서 왔다면 백 번도 더 포기를 했을 것이다. 뭔가를 해내겠다고 의미를 두면서 참가했지만 내 머릿속은 조금만 걸어도 숨통이 턱턱 막히는 추위와 고산증과 크레바스와 싸우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발목을 집어 삼킬 듯한 날카롭고 뾰족한 눈얼음조각과 살을 에는 돌풍을 떠올리면 생각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았다.

'괜히 히말라야에 왔나보다.' 악마의 발톱으로 변한 쇳조각 같은 바위조각길과 상어의 이빨로 변한 만년설은 금방이라도 내 발바닥을 뚫고, 내 발목을 집어 삼킬 태세다. 온도계를 만져본다. 차라리 모르면 더욱 좋았을 것을! 온도는 섭씨 영하 30도를 가리켰다. 이런 곳을 한걸음 한걸음 전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안내한 도우미와 머리 깊숙이 새겨진 가족과 친구, 지인들의 이미지도 에너지가 되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바람 한 점, 눈송이 한 점 피할 수 없고, 두 다리를 금방이라도 집어 삼킬 것 같은 만년설과 신발을 금방이라도 뚫어버릴 것 같은 날카로운 얼음조각 그리고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삼키면 곧바로 토하는 매스꺼움과 살을 에는 매서운 돌풍뿐인 안나푸르나에서 가족을 떠올리니 눈물은 어찌 그리 펑펑 흐르던지. 옆에 있는 도우미 모르게 소리를 죽이고 머리로 마음으로 내내 눈물을 흘렸다.

온몸이 얼어버릴 극한지역에서의 눈물은 따끈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몸 전체를 따끈하게 하는 작용을 해주었다. 매서운 돌풍이 눈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들어진 고글은 나의 눈물을 가두어서 얼음덩이를 만들었다. 가끔 고글을 들면 툭하고 얼음눈물덩이가 신발위로 떨어진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그동안 조금이나마 잘못 살았던 삶을 반성해 본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것이었다. 가족들 부모님, 친구와 지인들 등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면 잘 해주어야지 하고 다짐을 해본다.

멍한 순간이다. 도우미 배낭과 내 손목에 매어 있던 1m짜리 생명줄이 갑자기 당겨진다. '헉!' 쓰러진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딱 3분만 잤으면 소원이 없겠다. 엉덩이가 너무 차

갑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은 용수철처럼 하늘로 튀어 오른다.

지옥의 코스, 가파른 눈얼음길은 가는 내내 '내 몸에 숨통이 왜 존재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입속서 나오는 열기가 고철덩이마저 녹여버릴 기세다. 송곳보다 뾰쪽하고 톱니보다 날카로운 눈얼음길을 한발 한발 내디딜 때마다 머리가 쭈뼛 서고 발목이 후들거려 숨통이 터질 지경이다. 수시로 발생한 눈사태로 생긴 설산을 위태위태 기어가고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밭을 걷고 또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포기냐 강행이냐, 현기증이 돈다.

순간 나를 인도하는 도우미와 가족 생각이 혼미한 뇌리를 스친다. “경태형! 할아부지! 아빠! 여보! 힘내세요! 힘내!!!” 하는 소리가 고막을 강하게 때린다. 정신이 든다. 재빨리 배낭을 벗고 귀중한 생명수를 꺼내 마신다. “아! 차가운 살얼음 물이다.” 몇 초 지나야 차가움이 따스함으로 바뀐다. 설탕물을 그냥 넣어두면 아이스바나 팥빙수로 먹을 수 있는 온도로 물이 얼어 있었다.

신발 속으로 손을 넣어 보았다. 냉동 창고다. 손과 발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발가락도, 손가락도 만년설과 날카로운 바위조각에 노출되어 엉망이다. 꼭 어릴 때 할머니가 챙겨 주시던 광주리의 홍시처럼 변했다. 나의 손과 발은 물렁거리는 순서대로 터지고 있었다. 꼭 구멍 난 자전거 튜브처럼 여기저기 실로 꿰매고 밴드로 땜질하였다. 동상에 걸려 탱탱 부은 곳은 칼집 내 죽은피를 뽑아냈다.

설상가상으로 눈밭에 빠져 오른쪽무릎이 접지되어 탈이 났다. 40도의 가파른 눈얼음구간을 절룩거리며 올라가는데 한기를 느꼈다. 사방은 온통 만년설로 뒤덮여 앉아 쉴만한 공간도 없다. 애처롭게 가야하는 이유는 뭘까? 유난히 추위를 타는 나는 배낭에서 자켓침낭을 꺼내 몸에 뒤집어썼다. 굶주린 배는 눈을 퍼 먹어 허기를 채웠다. 그러나 금방 노란위액을 쏟아내고 피가래가 나왔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는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정상을 밟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가 생각난다.

새벽이 두렵다. 오늘도 얼마의 고문을 나 자신에게 시켜야 될지? 오늘은 악마의 발톱 얼음조각이 얼마나 나의 살을 도려낼지? 칼바람이 얼마나 나를 냉동인간으로 만들어 버릴지. 밤에는 지축을 뒤흔드는 돌풍이 얼마나 잠을 설치게 할지? 아무튼 확실한건 이것들은 나의 힘과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극한 상황이다. 더듬거리며 아침밥대신 얼음물을 입에 억지로 밀어 넣어 삼키고, 눈치 봐가며 생리현상 해결하고 그날 필요한 식량과 장비를 점검하고 복장착용하기도 왜 그리 바쁜지? 나는 삶에서 누구를 광명의 세계로 인도 하였는가? 누가 바른 길로 가도록 고무시켰는가? 나로 인하여 올바른 삶을 살도록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본다.

오늘도 최소한 2천 칼로리 이상의 영양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혹한과 고산증으로 식욕마저 떨어진 상태에서 허기를 만년설을 씹어 먹으며 배고픔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아내는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했다. 여자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후회가 된다.

많은 갈등과 고통 속에서 코피와 피오줌이 나왔다. 그래도 시간은 간다고 위로해 본다. 밤하늘은 별이 쏟아질 것 같이 선명하다. 솜털처럼 푹신한 눈밭에 누워 그대로 잠들고 싶다.

마지막 날이다.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한다. ‘오늘이 끝’이라는 생각은 이미 육체의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이내 시각장애인 세계최초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4,130m

고지를 두발로 넘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돈다. 이제 삶의 의미를 다시 새기자. 죽음의 문턱이 삶과 바로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푸른 들과 산을 가진 조국에게 감사한다. 다시 새로운 삶, 더 정직한 삶, 더 친절한 삶, 더 성실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자고 다짐해 본다. 힘든 고통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완주 후의 성취감이나 도전하는 의미가 그 만큼 크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좋은 기회였다.

끝까지 불평 없이 안내해준 도우미 김유성 구조대장님과 이중기 원정단장님, 한국산악회 전북지부 최병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대한상이군경회 유지철 중앙회장님, 탁경률 전북지부장님과 회원님, 열심히 응원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과 손자와 며느리, 그리고 지인들에게 감사드린다.

장애인계 뉴스

1. 한시련, 2012년 대의원 정기총회 및 전국심화재활교육연수회 개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은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2012년 대의원 정기총회 및 전국심화재활교육연수회를 실시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양지파인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대의원 및 지부·지회장, 안내인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대의원 정기총회에는 20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감사·결산 및 실적보고, 2012년 사업 및 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함께 진행된 심화재활교육에서는 장애인 정책,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강의가 열렸다. 우선 행사 첫날e 보건복지부 송재찬 장애인정책국장이 '2012년도 장애인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올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설명했으며, 뒤이어 최동익 한시련 중앙회장이 강사로 나서 2012년도 한시련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참석자들은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최동익 회장의 향후 활동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둘째 날에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 홍은녀 팀장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강의로 일정이 시작됐으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홍보과 강동식 주무관이 나와 내년 디지털방송 전환을 앞두고 장애인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했다. 한국 소리선 리더십연수원 김영술 교육원장의 '관계 향상을 위한 리더의 감성 보이스 디자인' 강의에서는 좋은 목소리를 갖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설명했다.

강의와 더불어 원주·안양지회 등의 지회장들이 지회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었던 사업들을 소개하는 우수지회 사례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해 2박 3일 일정이었던 것에서 올해는 하루를 줄여 1박 2일로 진행되었으나, 둘째 날 교육에 참석하는 인원이 적어 빈자리가 곳곳에 보였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 GKL(주),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요금 지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 이하 한시련),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심장섭, 이하 국중), GKL(주)(대표이사 류화선)는 4월 26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국중이 추진하고 있는「책 읽어주는 장애인도서관서비스 통신요금바우처제도」를 위한 '2012년 통신요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서 GKL은 '책 읽어주는 장애인도서관서비스(080-333-6688)'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통신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2천 5백만 원의 후원금을 한시련에 전달했다. 이는 2010년 5천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책 읽어주는 장애인도서관서비스 통신요금 바우처제도'는 시각장애인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0년 5월부터 국중, GKL, KT, 한시련이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국중이 사업을 주관하고, GKL이 통신요금을 지원하며, 한시련이 콘텐츠 제공과 통신요금 집행·관리를, KT가 서버 운영 및 기술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GKL이 후원한 2천5백만 원은 올 한해 약 700여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매월 15~30시간씩 '책 읽어주는 장애인도서관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본 행사에 참여한 국중, GKL, 한시련은 향후에도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논의함과 아울러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3. 장애학생들의 나흘간의 열전, 제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고양시에서 열려

고양시를 주 개최지로 경기도 일원에서 열린 제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5월 4일 폐회식을 갖고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에는 16개 시·도에서 1,615명의 장애학생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11개 정식종목과 2개 시범종목, 2개 전시종목 등 총 15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다.

최종우승은 금메달 49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44개를 획득한 서울시가 차지했으며, 지난 대회 우승지역인 경기도는 금메달 43개, 은메달 45개, 동메달 27개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울산은 금메달 43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27개를 획득하며 뒤를 이었다.

종목별 종합순위는 골볼에 서울, 농구에 서울, 배구에 전남, 보치아 (컬링과 비슷한 방식으로 공을 경기장 안으로 굴리거나 발로 차서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던진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편집자 설명)에 서울, 역도에 울산, 수영에 경기, 조정에 충북, 육상 필드에 서울, 육상 트랙에 서울, 축구에 경북, 탁구에 경기, e-스포츠에 대구가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의 김현준 선수는 100m배영(S14), 200m자유형(S14) 등 수영종목에서 금메달 5개를 획득하며 최다관왕에 올라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학생이 실종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e-스포츠에 출전한 지적장애 학생이 행사 이틀째인 5월 2일 오전에 실종되어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도 찾지 못했으나 폐회식 다음날인 5일 서울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발견되어 담당교사에게 인계되었다.

4. 소셜 네트워크, 장애인에겐 '사회적 단절'의 또 다른 이름
-대표 SNS 웹 접근성 평균 53.6점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미투데이, 페이스북, 트위터, 요즘 등 대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4곳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한지를 조사했다. 개별 차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트위터(www.twitter.com)는 최저 점수인 38.4점이었고 페이스북(www.facebook.com)은 50.4점, 요즘(yozm.daum.net)은 61.9점, 미투데이(me2day.net)는 63.7점이었다.

이들 SNS는 화면읽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글을 작성하기가 어려웠고 일부 메뉴는 버튼, 링크 등이 인지되지 않으며, 콘텐츠가 비논리적으로 나열되어 서식을 이해하기가 매우 불편했다. 또한 키보드만 사용하는 상지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이 사용하

기에도 불편한 요소가 많았다.

시각장애인 직업훈련으로 인터넷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의 홍보에 있어 SNS가 유리한 점이 많아, 교육과정에 이를 포함시키고 있다.

훈련교사인 이보훈 씨에 따르면, SNS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홍보가 가능하며, 마케팅 활용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웹 접근성이 엉망인데다 인터페이스가 수시로 수정되기 때문에 겨우 사용이 익숙해지면 다시 익혀야 하는 수고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일부 메뉴는 아예 접근이 되지 않아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유재호 소장은 “기술이 진보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문화지체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엄연한 사회의 책임”이라면서 “복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며, 각자의 위치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간과한 것이 없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해당 SNS측에 문제점 개선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5. 힘스인터내셔널, 보조공학 전문가 대상으로 세미나 열어

시각장애 보조기기 개발업체인 힘스인터내셔널이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보조공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2 보조공학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세계보조공학기기의 트랜드, 초청석학 강좌, 국내 콘텐츠의 서비스 정책, 학술연구 발표 등 지난 행사보다 다양해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장이자 힘스인터내셔널 대표이사인 윤양택 회장의 인사말과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김영일 소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으며, 뒤이어 한소네 전문가 과정, 음성도서 재생기 인터페이스 분야 과정, 저시력분야 과정 등 세가지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로 본격적인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어 대전맹학교 문성준 교사 등이 '정보공학기기를 활용한 교육방법의 개선과 기관간의 정보공유 방안', '고해상도(HD) 독서확대기를 이용한 학습효과분석 및 저시력 시 기능 훈련'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맹학교 학생들의 임상실험을 통해 고해상도의 독서확대기가 일반 해상도에 비해 가독성이 높고 눈의 피로도가 낮은 장점이 있으나 일부 단점도 갖고 있어 일반화를 위해서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둘째 날에는 힘스인터내셔널 최경선 부사장의 '2012년 시각장애분야 보조공학 기술의 동향'에 관한 강의와 힘스인터내셔널 기술연구소의 2012년 신기술 및 신제품 발표회가 진행됐다. 교양강좌로 웃음에 관한 강의를 듣는 것으로 세미나가 마무리됐다.

6. 영화 ‘코리아’, 화면해설·한글자막버전 상영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는 오는 5월 15일 19시 전국 11개 CGV 상

영관에서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 3월 29일 CJ CGV 및 영화진흥위원회와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고, 영화 관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관을 자유롭게 찾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장애인 영화관람데이'로 정하고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 영화를 선보인다.

지난 4월 17일 성황리에 마친 영화 <시체가 돌아왔다>에 이어 이번 달에는 사상최초 탁구남북단일팀의 실화를 다룬 영화 <코리아>가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영화로 시각장애인 관객을 찾아간다.

사전 접수를 마친 시각장애인이라면 5월 15일 19시 전국 11개 CGV 영화관에서 영화 <코리아>를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상영회는 지난 4월에 이어 무료로 진행되며, 추후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지부 및 지회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상영회 당일 영화관에서 접수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하다.

7. 인공 전자망막 이식 성공, 시각장애인 2명 시력 되찾아

영국에서 망막기능을 하는 전자칩을 안구에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해 시각장애인 2명이 시력을 되찾았다.

BBC는 지난 5월 3일 "전자 인공망막 이식실험이 성공해 완전 실명상태였던 시각장애인이 빛과 사물의 형체를 흑백으로 구별하게 됐다"면서 "이 같은 실험이 영국의 2백여만명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험은 독일의 전자 인공망막 개발업체인 '레티나 임플란트 AG'의 지원 하에 런던에 있는 옥스퍼드 안과병원의 로버트 맥라렌 교수와 킹스 칼리지 안과병원의 팀 잭슨 교수가 이끄는 공동연구팀에서 진행됐다.

연구팀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크리스 제임스와 로빈 밀러를 대상으로 인공 전자 망막을 이식했으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이들 모두 흑백상태로 물체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회복됐다.

이들의 눈에 이식된 전자 인공망막은 3제곱 밀리미터의 초소형 반도체 칩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빛을 전기신호로 바꾼 뒤 두 시각 장애인의 뇌에 있는 시신경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귀 뒤편 후두부 쪽에 조절장치를 달아 반도체 칩을 미세한 케이블로 연결했다.

수술환자 중 한 명인 제임스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빛이라는 것의 반짝임을 보았다"며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곡선과 직선은 구분할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이식실험에서 성공한 인공망막은 1,500개의 전자 화소(픽셀)가 장착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화소수가 1만개 수준으로 늘어나면 보다 선명하게 물체를 인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

대통령 직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19대 국회에서 가능할까?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기구는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관계부처 간 의견조정·장애정책의 감독 및 평가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1년에 1~2회 정도밖에 (그마저도 일부는 서면회의로 진행됨) 회의가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국무총리 산하의 기구라는 구조적인 한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의 상설기구인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 4월에 있었던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이러한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 전달했으며,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 등 3개 정당은 이를 수용해 장애인공약에 반영하기도 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84년부터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로 국가장애인위원회(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NCD)를 운영해오고 있다. 얼마 전 췌장암으로 별세한 강영우 박사가 정책차관보로 있던 기구가 바로 이곳이었다.

영국은 장애인차별법(DDA)에 의해 설치된 '장애권위원회(Disability Rights Commission, 약칭 DRC)'가 포괄적인 장애인 정책과 인권을 모니터하고 있으며, 일본은 수상 산하의 '중증장애자시책추진협의회'가 장애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한국장총은 앞서 말한 대통령 산하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자 지난 4월 18일 '장애인위원회 역할과 기능 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세미나에는 미국 국가장애인위원회 박동우 위원을 비롯해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소장,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실장 등이 발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삼호 소장은 대통령 산하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국가장애위원회법'을 별도 입법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장애인기본법 제정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희택 교수는 장애인위원회든, 국가장애인위원회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든, 반드시 상설조직·기구가 돼야 하며,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20여개 조직의 연계성에 대해 고민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치훈 실장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심의·조정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권위부족'은 동의하지 않으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된다고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김 실장의 말처럼 대통령 직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윤삼호 소장 역시 정책의 분리조장, 다양성 약화, 낙인효과, 정치권 주변 장애인들의 자리 마련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말한 민주통합당 등 3개 정당에서 내세운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책에 실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계 내부에서부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는 5월 30일이면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기구가 설치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독자마당

선거는 나를 고민에 빠트린다

한상희(서울 서초구)

선거는 늘 나를 고민에 잠기게 한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선거 전날 눈 수술이 예정 되어있어서 주민센터에 찾아가 문의를 했다. “부재자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자 주민센터 직원은 귀찮다는 듯 나와 함께 간 활동보조인에게 눈짓만 했다. 활동보조인은 “이건 선거안내장인데 이걸 갖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라며 말을 흐리며 전에는 어떻게 선거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전까지는 선거날 와서 투표를 했었는데 이번엔 수술일정 때문에 부재자투표를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이었다.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아니다보니 홍보도 덜 되어 있었고 담당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나는 화가 났지만 참고 기다렸다. 활동보조인은 굳이 불편을 무릅쓰고 선거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느냐며 그냥 투표를 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더 화가 났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한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다. 난 그러고 싶지 않았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담당직원이 돌아왔다. 부재자투표를 하려면 구청까지 가야한다고 했다. 구청은 우리 집에서 너무 먼 곳이다. 좀 더 가까운 지역이 없냐고 물으니 모른다고 했다. 좀 더 친절할 수는 없을까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다산콜에 문의해서 우편으로 투표를 대신했지만 왠지 내 투표권을 도둑맞은 기분이 들었다.

어떤 시각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이 자신과 선호하는 정당이 달라 혹시나 자신을 속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찍을까봐 차라리 기권을 했다고 한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 몇년 전 대선 때 일인데, 점자선거공보물이 배부되기 전이었다. 하는 수 없이 모 기관의 봉사자와 함께 선거를 하러 갔다. 봉사자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신뢰할만한 분이어서 함께 선거를 하러가자는 말에 동행을 했다.

그런데 상황은 실망스러웠다. 그분에 대해 잘 모르고 따라간 거였는데, 나와 전혀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분이었다.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여긴 1번, 여긴 3번 이렇게 찍으면 되요”라고 했다. 함께 온 것이 후회가 되었다.

평상시 전화를 자주 안 하는 우리 오빠도 선거 때가 되면 전화해서 “이번에 선거할거니? 누구 찍을 거야? 너 꼭 우리 집안사람 찍어라”라고 한다. 나는 그럼 “오빠, 난 내가 원하는 사람 찍을 거예요. 선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곤 한다. 부부, 가족, 친구끼리도 서로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다를 수 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언제쯤이나 마음대로, 불편함이 없이 선거를 할 수 있게 될까? 결국 꿈으로만 남게 되는 걸까?

선거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금융기관도 편하게 이용할 수 없다. 정안인의 도움을 받고 보안이 필요한 금융정보도 다 노출시키며 살아가고 있다. 활동보조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누구는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청약저축이 몇 개이고 얼마씩 저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안인의 도움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다.

요즘 냉장고나 텔레비전 값이 백만 원이 넘는데 점자로 된 설명서 하나가 없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마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베이터에 음성안내는커녕 점

자표시조차도 없는 아파트도 많다. 수입제품들에는 몇 천원짜리 약에도 몇 백원짜리 음료에도 점자가 새겨져있던데 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은 생활제품에서 소외를 당해야할까?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돌파했고 선진국에 들어섰다는데,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준도 여기에 걸맞아야하지 않을까 싶다.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다시 선거이야기로 돌아가서, 선거일에 차량이나 안내인 지원 서비스를 정당에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중증장애인이 투표할 때의 불편함이나 가전제품에 점자설명서를 첨부하는 일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지를 논하고 서민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다가올 대통령 선거가 벌써부터 걱정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4월 16일~4월 30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4월 17일(화요일) 복지저널과 인터뷰를 가진 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사회를 주재했다.

18일(수요일)에는 한시련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정립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이어 C채널방송과 인터뷰를 했다.

19일(목요일)에는 19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으며, 이어 KB국민은행의 지원으로 진행된 '새내기 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지원사업 전달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같은 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대회에도 참석했다.

장애인의 날인 20일(금요일)에는 제3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린 '교통약자배려 문화운동 선포식'에 참석한 후, kbs 제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에 출연해 인터뷰를 가졌다.

23일(월요일)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 참석했다.

24일(화요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경기도시각장애인한마음대축제'에서 축사를 전하고 최성 고양시장과 오찬을 가졌으며, 이어 '언론탄압 규탄 및 언론자유 수호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25일(수요일)에는 한시련 대의원 정기총회에 참석해 총회를 주재하고 2012년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에 관해 강의했으며, 같은 날 열린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임시총회에도 참석했다.

26일(목요일)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후, 숭실대학교 김대근 총장과 면담을 나누었으며, 다음 날인 27일(금요일)에는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최의광 관장 퇴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30일(월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4월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55)

1) 쌍둥이와 쌍동이 중 맞는 말은?

-답: 쌍둥이

-해설: 우리말의 모음에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있다. 양성모음은 'ㅏ, ㅗ, ㅑ, ㅘ' 등 어감이 밝고 산뜻한 모음이며, 음성모음은 'ㅓ, ㅜ, ㅕ, ㅝ' 등 어감이 어둡고 큰 모음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음성모음의 힘이 양성모음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대체로 음성모음을 표준어로 삼는다. '쌍둥이'는 '쌍+둥이'로 이루어진 말이다. '둥이'가 들어가는 말에는 '귀염둥이, 막둥이, 바람둥이' 등이 있다. 이들 단어 모두 '동이'로 쓰는 것은 비표준어이다. 단 '쌍동밤'은 이미 굳어진 말이므로 '쌍둥밤'으로 쓰지 않는다.

음성모음이 표준어로 채택된 말에는 이외에도 '깡충깡충, 뻗정다리, 오뚝이, 오순도순'등이 있다. 이때 한자어의 뜻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식이 강한 말은 양성모음 쪽을 표준어로 삼는다. (예시(*가 붙은 말은 비표준어): 부조금/*부주금, 사돈/*사둔, 삼촌/*삼춘)

2) '귀후비개/귀이개/귀개' 중 어느 것이 맞을까?

-답: 귀이개

-해설: '귀지'를 파내는 가늘고 긴 숟가락 모양의 기구는 '귀이개'가 표준어이다. 귀후비개, 귀개는 모두 비표준어이다.

3) '귓밥/귀창/귀지' 중 어느 것이 맞을까?

-답: 귀지

-해설: '귓구멍 속에 낀 때'를 뜻하는 말은 '귀지'가 표준어이다.

▶출처: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2010년 제3판 발행본)」(태학사 제공)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